

# 군장병 혜택 안내책자로 '한 눈에'

### 임실군, 35사단 등 주둔장병 복지 안내서 배포 관광지 투어 및 영화관람 할인, 숙박비 지원도

임실군이 지역 내 주둔 중인 군장병을 위한 풍성한 지원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었다. 15일 군에 따르면 2월 이후 군부대의 평일 일반 외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35사단 등 주둔 장병들의 복지 혜택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 배포한다.

안내서는 군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담아내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에 따르면 관내 주둔 군부대 외출 장병 및 35사단 수료식 신병에 대해서는 각각 2천원권(월2매/1인) 및 5천원권(1매/1인) 임실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부대 모범장병은 관내 관광지를 순회할 수 있으며, 119안전체함과 치즈체험 등 다양한 관광형

체험을 할 수 있다.

영화관람 시 할인 혜택도 포함됐다. 군장병이 영화를 관람할 경우 작은별 영화관에서 1천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장병들의 외출시간에 맞춰 상영시간 또한 조정·적용한다.

올해 말에는 추가로 2천원을 할인해 단돈 3천원이면 영화관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5사단 수료식 시 방문 군인가족 및 면회객을 대상으로 임실필봉농약공원을 지원하고, 임실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참여로 무료음료 봉사도 실시한다.

면회가족이 없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배려성 지원도 마련됐다. 국립호국원과 여성단체협의회와의 참여로 임실투어 및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둔 부대 평일 외출장병에 대한 수송차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실군 공공체육시설을 비

롯하여 내년부터 청소년수련원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전입장려금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안내서에는 임실의 맛집과 모범음식점, 민박(펜션), 캠핑장과 같은 군장병에게 유용한 종합정보를 담고 있다.

안내 홍보물은 제35사단 입소식과 장병들이 외출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 및 사단 수료식 등을 이용해 배포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안내서는 임실군에 주둔해 있는 군 장병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많은 장병들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동반성장하여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농식품부 선정

### RPC 유통시설현대화·DSC 신축 등 국비공모사업의 신청자격 획득

남원시가 증산정책 위주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대변화에 따른 식량산업의 발전방향과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수립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농식품부로부터 지난 12일 최종 승인되었다.

남원시의 이번 5개년 종합계획에는 농가 조직화 및 계열화,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논 타작물 전환 등 식량산업 전반을 새롭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금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식량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남원시의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2019~2023)은 그동안 서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논 타

작물 재배 50% 이상 확대 등의 평가를 거쳐 왔다.

이번 승인을 위해 남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 조합공동법인,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이 참여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 발전협의 보고회, 쌀 전업농을 비롯한 전 농업인들의 논 타작물 재배확대 동향 협의회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도내에서는 남원시를 포함해 5개 시군이 최종승인 받았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RPC 유통시설현대화, DSC 신축,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사업다각화) 등 국비공모사업의 신청자격을 획득 등 식량산업기반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식량산업종합계획 승인과 함께 RPC 비 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식량산업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해 남원시 식량산업 발전전략을 획기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도 되었다.

한편 이회주 남원시장은 "남원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최종 승인을 계기로 식량산업기반 확대와 농업·농촌 경쟁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지역자활센터 콩이랑두부랑 사업단 HACCP 인증 공모사업 선정

순창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승연)가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추진한 HACCP(식품안전위생관리기준) 인증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HACCP 인증 공모에 선정된 순창지역자활센터내 '콩이랑두부랑' 사

업단은 2022년까지 3년간 HACCP 인증 컨설팅과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최근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콩이랑두부랑' 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자활대상자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순창에서 재배한 콩을 활용해 두부를 만들어 반찬배달사업, 공공기관, 일반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서 합현배 신임 서장이 경찰모지 참배를 하고 있다.

## 남원경찰서, 합현배 신임 서장 부임

### 경찰모지 참배 시작으로 경찰서 순회하며 인사

남원경찰서(서장 합현배) 신임 서장으로 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합현배 총경이 15일 부임했다.

이날 합현배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경찰모지 참배를 시작으로 경찰서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치안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합 서장의 취임식 생략 취지는, 현장에서 바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분서로 따로 들어와 진행하는 취임식 행사보다는 앞으로 빠른 기일 내에 서장이 직접 지·파출소를 찾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한편, 합 서장은 전북 원주군 출신으로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덕진경찰서장, 전남청 정보화장비과장, 전북청 112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 풍산면 안곡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준공식

순창군이 15일 순창 풍산면 '안곡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순창군의원, 사회단체장, 주민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안곡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풍산면 금곡리 안곡마을 진입로 286m에 대해 노폭개선과 옹벽 설치, 아스콘 포장 등 도로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3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10월 본격 착공에 들어가 최근 6월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안곡마을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농도 306호선으로, 기존 진입로의 노폭이 3.0m로 협소하고,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뤄져 있어 차량 교통 및 통행이 불편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이번 선형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를 개선해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내 위험도로 개선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황의훈 총무국장 주요 소관 사업장 방문 점검

남원시 황의훈 총무국은 현장행정 실천을 위해 15일부터 하반기 주요 소관 사업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남원다움 전시관조성 및 개관, 명칭의 여정건립, 쓰레기 매립장 등이 있다.

점검에 나선 황의훈 총무국장은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황의훈 총무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대한 현장보고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안전에 더욱 유의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복흥 동산마을, 새롭게 재탄생

### 지난 12일 본격 착공

순창군 복흥면 동산마을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롭게 변화한다.

군은 농림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복흥 동산 창조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비 3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민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 리모델링, 마을생태 관광 조성, 마을경관 정비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17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 9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지난 5월에는 세부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동산마을은 인근에 내장산과 추령장승촌, 산림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마을로, 천년 습터와 건강 꽃길 등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면 향후 주요거점지로도 활력이 기대된다.

더욱이 동산마을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노사 기정진의 출생지로도 유명해 이번에 마을내 노사 기정진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될 길은 유명 성리학자인 기정진 선생의 삶을 스토리텔링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주요 관광자원으로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마을회관은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해 운영비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부공간도 새단장에 낡고 허름해진 마을회관을 매일 오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또 마을회관 인근 마을 생태관광을 마을 주민들의 화합공간으로 조성해 행사나 마을 모임 등을 치를 수 있게 공간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공간 조성으로 가장 불편이 많았던 주차난을 해소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향후 마을장터 운영으로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 할 전망이다.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